



생동하는 봄 3월 5일 힘차게 달려요

제52회 3·1 전국마라톤 풀코스·하프코스 시의 참가자·날씨 등 고려 일요일에 진행 1~45위 시상·원양부부상·행운상 등 다채

새봄을 맞는 희망찬 질주가 광주 도심에 펼쳐진다. 호남 마라톤의 역사를 잇는 '광주일보 3·1절 기념 전국마라톤대회'가 오는 3월 5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옛 전남도청)에서 열린다.

52번째를 맞는 이번 질주는 시의 참가자들의 편의와 날씨 등의 상황을 고려해 3·1절 기념일이 있는 일요일에 진행된다.

3·1 독립운동의 정신을 기리는 이번 대회에는 민주·인권 도시 광주의 역사와 의미도 담겨있다. '광주일보 3·1절 기념 전국마라톤대회'는 5·18 민주화운동의 심장부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출발해 호남의 젖줄인 영산강길을 달린 뒤, 승촌보를 건너 상무시민공원으로 골인하는 코스로 치러진다.

광주의 도시를 달리는 특별한 코스는 52년의 오랜 역사와 어울려 3·1 마라톤을 '명품대회'로 꼽히게 한다.

마라톤 마니아들의 새 시즌을 열게 될 이번 대회는 풀코스와 하프코스로 나눠 전개된다.

오전 8시 30분 풀코스 참가자들이 먼저 새봄을 향해 달려나간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출발한 풀코스 참가자들은 풍암저수지 사거리를 지나 영산강길을 따라 승촌보로 향한다. 나주 도안을 돈 이들은 42.195km의 마지막 지점인 상무시민공원에서 막판 스피트를 펼친다.

오전 8시 35분에는 하프코스 참가자

들의 출발을 알리는 스타트 총성이 울린다. 하프코스 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출발해 서창교를 돌아 상무시민공원으로 들어오는 코스로 진행된다.

건강한 질주를 위해 행사장 곳곳에 구급차가 배치되고 생수와 스포츠음료 및 간식 등이 제공된다. 페이스 메이커 '광화문 마라톤 모임'과 레이스 패트를 요원인 '노란 자전거'도 즐겁고 건강한 달리기를 위해 마라톤 마니아들과 함께 한다.

기록 측정용 칩을 이용해 부문별 1~45위까지 시상을 진행한다. 대회 현장에서는 1~3위까지의 시상식이 거행된다.

가장 먼저 42.195km 결승 테이프를 끊는 풀코스 남·여 우승자에게는 상장·트로피와 함께 50만원의 상금을 준다. 2위는 40만원, 3위는 30만원, 4·5위에게는 각각 20만원의 상금이 부상으로 수여된다.

하프코스 우승자는 상장·트로피와 함께 30만원의 상금을 받는다. 2·3위에게는 20만원, 4·5위에게는 10만원의 상금이 각각 주어진다.

대한체육회(대한육상경기연맹, 대한트라이애슬론연맹, 대한근대5종연맹 등)에 등록된 이는 시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결승선을 통과한 참가자들에게는 완주 메달이 기념품으로 제공된다. 참가자를 위한 간식과 음료도 준비됐다. 개인기록은 대회종료 직후 휴대용 문자메

시지를 통해 통보된다.

20인 이상 참가 단체를 대상으로 단체 시상도 이뤄진다.

단체상은 참가자수가 많은 단체 순서로 풀코스 2점, 하프코스 1점을 배정, 합산해 순위를 정한다. 1위 팀 50만원, 2위 40만원, 3위 30만원, 4위 20만원, 5~10위 1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참가자 및 동반가족이 사용할 수 있는 텐트도 설치된다.

화합의 무대를 기념하는 특별상도 마련됐다.

증빙서류를 미리 제출한 이들을 대상으로 원양부부상이 시상되고 이외에 포토제닉상, 행운상 등 특별상도 수여된다. 행운상은 3·1 마라톤의 52번째 질주를 기념해 전체 참가자 중 사전 추첨을 통해 52명을 선정해 시상한다.

반세기를 넘어 호남의 마라톤 명맥을 잇고 있는 이번 마라톤 대회의 접수는 오는 8일까지 계속된다. 참가비는 2만 5000원으로 광주일보 마라톤 홈페이지(<http://mara.kjmedia.co.kr>)를 통해 공지사항을 확인한 뒤 신청 접수를 할 수 있다. 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팩스(062-222-0195)나 이메일(saup@kwangju.co.kr)로 접수한 뒤 신청확인(062-220-0541)을 하면 참가 신청이 완료된다. 광주일보 문화사업국(금남로 2가 무등빌딩 16층)을 찾아 방문접수도 할 수 있다. 전화접수는 이뤄지지 않는다.

한편 이번 대회는 광주일보와 아시아문화가 주최하며 광주육상경기연맹, 마라톤세상이 공동 주관한다. 또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지방보훈청이 대회를 후원한다.

7337/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올해로 52회를 맞는 광주일보 3·1절 기념 전국마라톤대회가 오는 3월 5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시작된다. 사진은 지난해 대회 참가자들이 출발신호에 맞춰 힘차게 발을 내딛고 있는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